

“올해 임실군정 운영 잘했다”

4000억 예산시대 돌입... 든든한 재정규모 달성 치즈축제, 45만명 관광객 유치 ‘유망축제’ 선정

임실군이 2017년 임실군정 최대 성과로 탄탄한 예산확보를 통한 ‘살기 좋은 임실의 시대’로의 도약을 꼽았다.

임실군은 28일 역대 최초 4,000억원대 예산시대 진입 등을 포함한 2017년 군정 10대 성과를 선정, 발표했다. 군은 올해 전체 예산 4,025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임실군 예산이 4,000억원을 돌파한 것과 국가예산 1,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든든한 재정규모를 달성한 것을 첫 번째로 선정했다.

또한 임실N치즈축제와 관련하여서는 45만여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임실N치즈축제의 대성공과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대한민국 유망축제 선정을

두 번째로 뉴스로 꼽았다.

이어 임실N치즈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 등 임실N치즈산업의 성공적인 안착도 높게 평가됐다. 임실N치즈산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조성 및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및 임실치즈팜랜드 조성 사업 등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반세기 숙원사업인 육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의 국비 확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성과로 기록됐다. 육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가 50년만에 국비를 확보, 임실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이뤄지는 긍정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일일제강 2,000억원 추가

투자 협약, ‘임실비전 2026’ 수립,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2관왕 등 분야별 36개 수상 기록 등이 10대 뉴스에 들어갔다.

또한 임실농협이 재확당이 준공돼 내년 초 첫 신입생을 맞게 됐으며, 전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 A등급,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등이 주요 긍정성으로 선정됐다.

심민 군수는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열심히 뛰고 또 뛰었다”며 “사상 최초로 임실군 예산이 4,000억원을 넘어섰고, 육정호 수변관광도로와 같은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내서 매우 기쁘고, 내년도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며 더 잘사는 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치매환자·가족에 ‘희소식’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추진 속도... 18일부터 임시개소

순창군이 치매안심센터 추진을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서 지역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은 현 정부 대통령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에 일환으로 (구)보건국의료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보건국의료원 1층에 350㎡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치매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예방교육과 홍보, 치매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보건소 내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해 운영하는 실질적 행보에도 들어갔다.

순창군은 보건국의료원장을 센터장으로

로 하고 간호사 신규 채용인력 4명과 기존인력 1명을 포함 총 5명의 치매 전문인력을 확보해 치매 상담 및 등록, 사례관리, 조기 검진 등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 기존에 시행하던 치매상담, 조기검진, 교육·홍보사업은 물론 추가로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1:1 방문사례관리, 치매 고위험군 및 인지 저하자를 위한 주2회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으로 치매어르신들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정영곤 센터장은 “치매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우선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면서 “내년 하반기 완료를 받음으로써 추진하고 군민의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건강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국의료원 전화 650-524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위한 첫 행보 나서

임실군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박진두 부군수, 귀농귀촌인 등 9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27일 군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표자 선임, 설립 취지문과 정관 채택, 임원선임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임실군귀농귀촌지원센터’는 농촌유치사업·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비롯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인 상담과 정보 제공, 지역민과 소통의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인구 증가로 이어져 농촌의 활력이 되살아 날 것”이라며 “제2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찾은 농업인이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효자손 역할 특출

순창군 농업인 경제적효과 57억여원 ‘큰 호응’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난 한해동안 농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걸로 평가됐다.

군은 지난해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총 6,304건으로 집계됐고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받은 직접적 경제적 효과는 57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농민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사랑받는 배경은 우선 유등면에 있는 임대사업소 본소에 서 멀리 떨어진 북흥과 쌍치 및 구림지역 주민들이 임대사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난 2015년 구림면 사골에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도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2억 5천여 만원을 확보해 노후 정도가 심해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원판장기를 전면 교체했다. 승용관리기 및 두둑

성형기, 승용예초기, 동력운반차 등 여성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장비를 구입해 여성농업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점도 인기 비결이다.

특히 소형굴삭기, 소용예초기, 감자선별기 등 부족한 농기계를 구입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유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2017년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순창군이 10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2억여원을 교부받는 성과도 거뒀다.

군은 확보한 인센티브는 SS퇴비살포기, 차량용탈방제기, 저상형 트랙터, 소형굴삭기 등 노후되고 부족한 농기계를 구입해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망률 1위 암, 건강검진으로 예방

남원보건소, 검진·의료비 지원

남원시보건소는 우리나라 국민 사망률 1위인 암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2018년 국가 암검진 사업 홍보에 나섰다.

국가 암검진 5대 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며 검진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다. 암검진 주기는 위암·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2년 주기이며, 간암은 만40세 이상(간암 발생 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매년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당해연도 암검진을 통해 암을 확진 받은 경우 급여본인부담금을 최

대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으로 본인 부담금을 최대 220만원까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간단한 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조기에 치료하면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국가 암검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에 검진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검진기관 안내 및 조기검진 독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 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 접수

임실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조건은 ▲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업협동조합 등도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인월 경애원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 준공식 열어

남원시는 2017년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월 경애원 나눔숲(실외숲) 조성사업 준공식을 지난 27일 11시 경애원에서 개최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제막식 등 운영위원을 비롯한 시공업체, 임소자 등이 함께 축하하며 따뜻한 준공식을 마쳤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도록 사업비 전액을 녹색자금(기금 100%)으로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2억을 지원받아 기존의 잔디광장을 다양한 수목(9,335주)과 산책로 등 녹색숲을 조성하였고, 정자, 등 의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경애원의 입소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사유지 매입,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사업이 늦어져 겨울철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시공사, 경애원, 남원시가 상호 소통하며 원만하고 신속하게 협조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남원시는 2011년 1개소, 2012년 1개소, 2013년 1개소, 2016년 1개소 총 4억을 지원받아 나눔숲을 조성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